



제 400회 국회 (정기회)  
제 4차 외교통일위원회

#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제7차 핵실험 중단 촉구 결의안

## 검 토 보 고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72호)

2022.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문 ..... | 1 |
| III . 검토의견 .....     | 4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2년 5월 27일
3.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 II. 제안이유 및 주문

### 가. 제안이유

북한은 지난 5월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 이는 올해 북한이 자행한 17번째 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임.

특히 이번 도발은 북한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신형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그동안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왔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 왔음.

더욱이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핵 기폭장치 시험을 반복하는 등 7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제7차 핵실험 준비 및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 나.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22년 5월 25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2022년 상반기에만 17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으며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핵 기폭 장치 작동 실험을 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 것을 촉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22년에 자행한 17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공동 성명에서의 핵무기 포기 약속과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 Ⅲ. 검토의견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간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UN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다수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제재를 통하여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시도를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sup>1)</sup>, 2022년 5월 25에는 김정은 집권 이래 최초로 2종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을 무력화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 이 함께 채택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반하고, 그 후속조치로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등 각종 위협행위와 위반행위를 규탄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1) 2022. 11. 3.까지 27회 탄도미사일 발사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강력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외교적·안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266 |